

추미애 · 박영선, 당대표후보 단일화 이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박영선 의원이 22일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당대표후보 단일화 논의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당대표 선거 후보단일화 논의를 비판했다.

추 의원은 "계파 정치를 비판하는 쪽(비주류)에서 (단일화를 추진하고) 그런다면 또 계파정치를 왜 하느냐는 오인을 받을

추미애 "단일화하면 계파정치 원인 제공" 박영선 "김부겸에게 전대 나오라 제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갑자기 모여서 누구를 밀자고 한다는 것은 당내에서는 불식시켜야 될 계파정치를 만드는 원인제공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영선 의원은 김부겸 의원과 단일화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에서 "제가 김부겸 의원에 전당대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지금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과열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좀 더 합리적인 방

법과 심사숙고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며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정권교체로 가는 징검다리기 때문에 당대표가 얼마만큼의 확장성이 있느냐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5년 민주당 2·8전당대회와 같은 그 후유증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추 의원 등 당내 친노무현·친문재계계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당대표로 뽑아선 안 된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성주 기자



김종철 · 국주영은 · 장명식 · 최훈열 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김종철(전주, 행정자치위)·국주영은(전주, 환경복지위)·장명식(고창, 교육위)·최훈열(부안 1, 환경복지위)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제8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원이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정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종철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취약계층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가 하면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및 공공건물물 소방 시설공사 관리 발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발전이 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국주영은 의원은 도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전국 100대 우수 조례로 선정됐고, 지역사업 도서관 의무화와 장애인 평생교육 증진 생활임금제 도입 촉구 등 소외취약 계층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훈열 의원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권포럼이 선정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수구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입법 활동에 앞장섰다. 또한 평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대안제시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명식 의원은 우박피해 수확농가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신설 및 확충, 삼성드림플러스 장학사업 실시 촉구와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예산 편성 촉구 등 교육현안에 적극 대응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광영 기자

안철수 "기득권 유착관계 깨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경제·법조·교육·언론·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하다. 관공리에서 메피아까지 기득권 체제의 유착관계는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라며 "기득권이라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는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전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패하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 "갑이 울에 대한 울의 또 다른 울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울에 대한 기득권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모두는 패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기득권들과 싸우겠다.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겠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주 기자



민주주의회복 TF 회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 TF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 "너무 늦지 않게 대선 출마 입장 밝힐터"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 "너무 늦지 않게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안 지사는 22일 충남도청 내 카페에서 민선 6기 중간결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제 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고 그동안 고민하고 성찰했던 입장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그는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각을 세우다보니 자주 대선 출마론이 제기되는 것 같다"며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다"고 서론을 꺼냈다.

이어 "저는 2010년, 2014년도에 도지사 출마의 변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미완의 민주주의 역사를 완성하고, 김종필·이회

창 총청원 선배들의 비애의 역사를 뛰어넘고, 자치분권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겠다고 선언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잘 준비해서 제가 나서고 선언해야 할 때 늦지도 성급하지도 않게 결론을 내겠다. 도전하거나 선언을 하거나 정치적 태도 결단에 대해 때를 놓치지 않게 하겠다"며 "지금쯤은 이야기할 하기에 이르다. 뒷날서 블루베리 인기가 두 달 걸린다. 늦지 않게 때가 되면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지사는 "불편투수 등판론"에 대해서는 "당내 입후보 결정시기 확정될 때 쯤이 될 것이다. 불편투수는 갑동이 결정하는 데 경기흐름을 살펴야 한다"며 "상황과

형편을 보고 저 스스로 구체적인 의지가 있을 때 실력을 갖췄을 때 등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편투수 개념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제가 말하는 불편투수는 보조 개념 아니다. 특정후보의 대체개념이 아니다. 박원순, 문재인 등 많은 선배들에게 대한 후배로서 예의를 갖춘 표현이었지 보완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 지사는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의 의지는 분명하다. 지역주의 정치, 20세기 낡은 정치, 표류하고 있는 정치체제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제가 나서보겠다"며 "상황과 때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자기 검증이다. 저 스스로 확신이 들때 제 마음을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성주 기자

권성동 '절대 안물러나'

김희욱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로부터 탄핵 당한 권성동 사무총장이 22일 여전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경질 발표 사흘째 버티기다.

권 총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변화없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뒤, 자신의 경질을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도 "계속 나아와요? 일부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데"라고 친박 국소수만 자신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3일 비대위 회의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성주 기자

朴대통령, '공약 파기' 사과 없이 정면돌파 전망

靑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공약 지켰다" ... 국무총리 전면 내세워 반발 여론 등 후폭풍 대응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하면서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없이 사태를 정면돌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동반탈락했지만 기존 김해공항의 대규모 확장이 신공항 건설이나 다른 없기 때문에 공약을 지켰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전날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부터 줄곧 침묵을 지켜 왔던 청와대는 22일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신공항이 되는 것이다.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 아니냐"며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이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공항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국토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는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 침묵을 지키며 이같은 대응 논리를 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부터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2012년 2월2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도 "신공항은 현 정부에서 폐기한 정책이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선거가 임박했던 그해 11월30일 부산을 방문해서는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이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며 "부산 시민들께서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공약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시절이던 2011년 3월31일 이명박(MB)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자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예

측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터여서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다.

5년 전 청와대 결정을 내렸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1년 4월1일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결론적으로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때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MB 정부에서는 밀양과 가덕도 만들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보로 선정된 3곳 가운데 김해공항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가 아니라는 논리다.

또 김해공항 확장에 회의적이었던 MB 정부와 달리 애초부터 신공항의 여러 최적지 가운데 김해공항 확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공약 파기라는 주장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한 박 대

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이 명확한 만큼 신공항 결정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날 신공항 후속조치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사과 대신 황 총리를 정면에 내세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공약 파기 논란과 반발 여론 등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운영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정래 늘어날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가 동반탈락했던 당시에도 "지금 당장은 (신공항의)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만큼 공약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약 후퇴"나 "공약 불기" 정도는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주 기자

국회 운영위 첫 발... '일·협치' 강조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포함된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등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세 사람을 간사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국회운영제개선소위원회,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위원회 산하 4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행정비서관 1인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가 3당 체제가 되면서, 추가 인력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운영위원장인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협치'와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잡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점을 상기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치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여소야대, 3당 체제가 다소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바른 구도 속에서 오히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의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운영위에서 20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도 개선의 문제를 포함해 진지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인 국회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원내대표직만 세 번째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가 수차 운영위를 해왔지만 과거 관행을 너무 지켜가는 운영위가 20대 국회에서 안되기를 바란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위는 간사 협의에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 일정을 정한 뒤 소위원회 업무보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당 오늘 '탈당파 3인방' 복당 의결

무소속 주호영 이철규 의원이 22일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완료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탈당파 3인방'에 대한 복당 신청을 의결하면 새누리당은 120석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122석에 비해 7석이 많은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가 7명 무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일괄 복당을 승인했고,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수 대안결과 당의 혁신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 조사도 실시했다"며 "동행·삼척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려면 혼자가기보다 함께 가야 한다는 시민여러분의 바람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